

광주 AI 헬스케어플랫폼 1800억...전남 헬스케어밸리 8000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7조원 투입 초광역 협력사업 13건 선정

전북, 교통물류 4조5000억
부·울·경, 광역교통망 등 8조
충청권, 자율주행 등에 3조원
“균형위마저 불균형 지원” 불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권, 강원, 제주 등에 모두 13건 17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사업’은 단일 지자체 행정구역을 넘는 정책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 또는 협조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광역적 경제·생활권역의 형성·발전에 기여해 국가를 균형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지난 10월 26일까지 사업 공모를 받았다.

◇균형위 마저-충청과 부·울·경에 예산·사업 집중=광주(부산, 경기)는 ‘초연결 AI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전남(광주, 전북)은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 밸리 조성사업’으로 각각 1800억원과 80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북(경북)은 4조5000억원 규모의 교통물류 분야 동서내륙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균형위의 발표와 관련 정부가 충청권과 부·울·경에 지나치게 예산과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청권에는 3조원대의 산업 및 환경 분야 사업을, 부·울·경에는 8조원대의 교통물류 및 산업 분야 사업을 각각 배정했기 때문이다.

먼저 충청권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에 2조2400억원, ‘4차 산업혁명 기반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690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사업은 모두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 내 지자체만을 위한 사업이다. 여기에 충남(인천,

경기)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사업 588.5억원도 마련했다. 부·울·경은 ‘동남권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7조7195억원의 예산을 가져갔다. 전체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절반에 육박한다. 여기에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2009.5억원, ‘동남권 그린 수소항만 조성’에 1540억원을 쟁겼다.

◇광주·전남,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 8000억원·초연결 AI 1800억=전남이 주도하고 광주·전북이 함께하는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은 초고령화 지역인 광주·전남·전북의 바이오메디컬 혁신자원을 연계, 융복합해 웰에이징(well-aging, 건강하게 나이 먹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밸리 조성 및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1단계(2021-22)에는 거점지역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및 연계개발 프로그램 운영, 2단계(2023-25)에는 휴먼헬스케어밸리 연구·치료·산업화 생태계 조성, 3단계(2025~)에서는 예방·치유·요양(휴양) 통합형 헬스케어 거점지대화 및 글로벌 신산업화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비 8000억원 중 국비는 4800억원, 지방비와 민자가 각각 1600억원씩이다. 주관기관인 광주전남 연구원은 이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1.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0.59조원, 취업유발효과 9만5000명 등의 정량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도 주도하고 부산과 경기가 참여하는 ‘초연결 AI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각 지역별 의료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협력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활용 플랫폼을 통한 AI기반의 연구개발, 상용화 및 실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광주는 데이터, 부산은 실증 및 응용, 경기는 연구개발을 각각 맡았다. 사업비 1800억원 가운데 국비가 1080억원이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20주년 기념식에서 권노갑 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며, 지방비와 민자는 각각 360억원이다. 데이터 거점인 광주는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슈퍼컴퓨팅,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인프라를 연계하고, 실증 거점인 부산은 풍부한 의료산업 인프라, 서부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AI 헬스케어 스마트시티를 연계한다. 경기는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모델을 활용해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연구개발 기업, 인력, 스타트업 기업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총리 “혼탁한 정치에 국민 힘겹다...DJ 그리워”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늘 국민이 먼저였다”며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김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0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따라 대통령님이 사무치게 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게재했다. 정 총리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와 혼탁한 정치에 힘겨워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김 전 대통령의 지혜로운 말씀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영임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정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정치적 멘토이자 아버지”라며 “25년 전 제게 내민 손이 지금의 정세균을 만들었다”며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정 총리는 이날 김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김대중의 길, 평화의 길, 용서와 화해의 길을 이어가자”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완성하는 꿈을 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도 “광주시 민간공항 이전 약속 파기...시도민 상생 염원에 찬물”

전남도의회는 행정통합 예산 삭감

국가 불균형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광주·전남이 공항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이 전북과 함께 정부·여당에 단일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사업의 호남 배정을 촉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지역주의에 매몰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는 광주시가 시민 여론을 이유로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한다’는 지난 2018년의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겠다고 지난 9일 밝힌데 대해 즉각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했다.

전남도는 10일 “민간공항의 이전시기를 국토부·국방부·광주·전남 4자 협의체에서 군공항 이전 문

제와 함께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안국제공항은 광주민간공항의 기능을 포함한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계획됐으며, 민간공항 통합은 이미 2018년 양 시도가 합의해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광주·전남 TF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4자 협의체에서 구체화된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발표가 사·도간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전남도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민간공항이전 문제 해결의 책임을 떠넘긴 4자 협의체는 군공항 이전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로, 민간공항에 관한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으며, 최근 상생발전의 발표문에도 협의체는 군공항 이전문제만 다루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주장이다. 전남도는 “광주시는 4자 협의체를 민간공항 통합 번복수단으로 활용

한 것은 물론 협의체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광주시의 주장은 상생을 강조한 시도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의 경우 국가적 사안으로 수용성 확보가 어려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의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시도 행정통합 관련 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한 전남도의회도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의 광주민간공항 이전 백지화 발표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이용섭 시장이 민선 7기 상생과 화합의 상징이었던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파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2021년까지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 대통령 지지율 37.1%...2주 연속 최저

리얼미터 조사...민주당 소폭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나타내며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1%로 나타났다. 지난 주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40% 선 아래로 내려가며 기록한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8.2%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떨어진 4.7%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6.0%p), 중도층(2.2%p)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전주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던 광주·전라(7.4%p), 대전·세종·충청(6.6%p)은 회복세를 보였다. 인천·경기(4.8%p), 부산·울산·경남(4.5%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는 민주당의 개혁 입법 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 코로나19 재유행과 백신 접종 계획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1.7%포인트 오른 31.4%, 국민의힘은 0.8%포인트 내린 30.5%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